발심 하면 법신을 볼 수 있다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믿음을 성취하여 진여법을 생각할 줄 알고, 선행을 모으기를 좋아하며, 대비심을 일으키는 보살들은 그 덕택으로 법신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부처님과 같은 행적을 나타내 보여주게 된다. 부처님의 일생을 여덟 가지 모습으로 설명하는 팔상도(八相圖) 이야기가 기신론에서도 설해져 있다. 이는 부처님의 일생을 도식적으로 설명하는 전형적인 모델이 되는 것이다.

도솔천에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와 모태에 들어가는 도솔내의상(兜率來儀相)과 출태(出胎)하여 인간으로 태어나는 비람강생상(毘藍降生相)과 성(城)의 사대문 밖에서 인간의 생노병사 등 고(苦)의 현실을 직시한 사문유관상(四門遊觀相)과 성을 나와 출가한 유성출가상(踰城出家相)과 설산에 들어가 수도한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 보리수 아래서 성도한 수하항마상(樹下降魔相)과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한 녹원전법상(綠園轉法相)과 사라수 아래서 열반에 드신 쌍림열반상(雙林涅槃相)이 팔상(八相)이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러한 발심을 한 보살들을 아직 법신(法身)이라 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과거 무량세로부터 지어온 업의 잔재를 완전히 끊어 버리지 못하여 태어난 곳에 따라 생활하는 육체적 환경의 고통이 미세하게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거의 업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 대원을 발하는 자재한 힘이 있으므로 범부들과 같은 업에 묶이는 결박에서는 벗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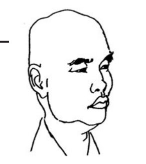
진정한 발심을 얻기 위해선 마모 않는 공덕을 개발해야

간혹 어떤 경전에서는 대원(大願)을 발한 보살들도 때로는 수행의 길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있고, 잘못된 길에 떨어지는 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처음 발심한 보살이 아직 바른 수행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해 혹 게으름을 피우는 수가 있으므로 그들을 분발하게 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설해 놓은 말일 뿐이다. 대승에 발심한 보살들은 결코 겁을 내거나 나약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 이승들의 지위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 그리고 아무리 오랜 세월을 고행을 하여야한다는 말을 들어도 회의를 품고 나약해지는 일도 없다. 왜냐하면 일체 법이 본래부터 그대로 열반임을 믿고 알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혀 놓았다.

믿음을 성취한 발심의 다음 단계는 알고 실천하는 해행발심(解行發心)이다. 이는 보살들이 처음 발심한 이래 아승지겁이라는 오랜 세월의 수행기간이 만료되면 이해와 실천이 굳건해져 더욱 나아진 상태의 발심이 되는 것을 말한다. 마음이 항상 진여의 마음으로 돌아가 세속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벗어나고 어떠한 파멸적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진여의 본성에 순응하여 바라밀행을 수행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 생활의 덕목이 여섯 가지 바라밀이다. 바라밀이란 범어 파라미타(paramita)를 음사한 말로 저 언덕, 곧 열반의 세계에 도달한다는 뜻이지만 완성된 상태를 향해 닦아 나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이 바라밀을 실천 하는 데 있어서 보살들은 진여의 본성 곧 법성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순응하기 위해서라고 본문에서는 실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진여의 본성은 인색하지 않고 탐욕이 없다는 것을 알고 보시바라밀을 완성하려 하고, 진여의 본성이 인간의 관능적 욕구인 재물, 이성 간 음욕, 음식, 명예, 수면 따위의 오욕락을 떠나 있는 것을 알고 지계바라밀의 완성을 기한다. 진여의 본성이 시기, 질투, 분노와 같은 번뇌를 영원히 떠나 있음을 알고 인욕바라밀의 덕을 성취한다. 진여의 본성이 몸과 마음 곧 육체적 정신적 상황의 한계가 없어, 게으름 등이 없음을 알고 정진바라밀의 덕을 완성한다. 진여의 본성이 어지러움과 분열됨이 없이 항상 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순응하여 선정의 덕을 완성시킨다. 진여의 본성이 밝고 지혜로워 조금도 어리석음이 없음을 알고 이에 순응하여 지혜의 완성을 기해 나간다.

이상의 여섯 가지 바라밀다의 설명은 모두 진여의 본성에 순응하는 방편으로 설명된 것이다. 이것은 곧 진여 본성에 갖추어져 있는 마모되지 않는 공덕(無漏性功德)이 개발되는 것이다. 결국 발심이란 이 무루성공덕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것이 완성되면 진여 자체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법신의 모습인 것이다.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無心에 대해

무심(無心)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인위(人爲)와 무위(無爲)에 대해 〈장자〉외편의 일화를 끌어와야겠다.

황하의 신이 북해의 신에게 묻는다.

"무엇을 자연이라고 하고 무엇을 인위(人爲)라고 합니까?"

이에 북해의 신이 대답한다.

"소나 말에게 네발이 있는 것을 자연이라 하고 말의 목에 굴레를 씌우거나 소의 코를 뚫는 것을 인위라고 하는 것일세. 그러므로 인위로서 자연을 없애지 말고, 일부러 타고난 성품을 꾸미지 말며, 명예와 이익을 위해 성품의 근본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네. 무리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으며 성품그대로 꾸밈과 조작이 없는 것을 가리켜, 천진(天眞)의 모습 그대로를 무위(無爲)라 하는 것이네."

이어 장자는 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이어주거나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잘라주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일깨워주고 있다.

다음으로 짧게 설명할 부분은 무주상(無住相)에 대해서다. 무주상의 반대는 유주상(有住相)이다. 유주상이란 생각의 노예가 되어 생각의 윤회를 거듭하는, 나(我)를 드러내고 앞세우려하는 중생심을 일컫는 말이다. 그렇다면 무주상이란 생각에 머물지 않고 자유로우며 흔적과 자취도 없는, 비어 있는 그대로의 충만을 의미한다.

유주상(有住相)이 인위(人爲)라면 무주상(無住相)은 무위(無爲)라 할 것이다.

또 하나 간단히 설명할게 있다. 불교용어인 유루(有漏)와 무루(無漏)에 대해서다. 여기에서 루(漏)는 뭔가 틈이 있고 구멍이 있어 세어나간다는 의미이며, 번뇌를 의미한다. 속세(俗世)를 루세(漏世)라고도 하는데 번뇌에 끄달려 사는 것이 유루(有漏)라면, 번뇌에서 자유로운 해탈자의 삶이 무루(無漏)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무심(無心)은 어떠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유심(有心)에 대한 설명 이후로 해야겠다. 사람은 누구나 무심(無心)과는 거리가 먼 유심(有心)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눈, 귀, 코, 입, 몸, 뜻이 작동하므로 일으키는 수많은 생각들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재물과 사랑, 명예와 먹거리, 목숨연명으로 헐떡이고 흔들린다.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싸우고 다투고 토라지며 벽과 울타리를 만든다. 몸과 마음은 진흙탕에 이미 빠져 있는데도 그럴듯한 명분과 실리를 내세우며 속고 속이는 전쟁놀이를 즐긴다. 끌어당김과 빼앗는 에너지로 집착과 소유욕에 불을 당기며 배반과 배신을 일삼는다. 거짓과 위선으로 이익이 되는 곳에서는 단거리선수처럼 빠르고 봉사와 희생이 따르는 곳에서는 거북이처럼 더디다. 가장 순수해야할 사랑 나눔에도, 한 달 수입과 튼튼한 직장이 우선시 되고 종교와 신앙에 있어서도 집단이기주의가 앞서가며 성직(聖職)이 아닌 돈 버는 직업으로 전락해가는 개인이기주의의 전성시대다.

모든 마음의 병은 소유욕과 집착서 비롯 한 생각 일어나되 머물지 않아야 자유인

그럼 이쯤해서 무심(無心)을 설명해야겠다. 꾸밈과 조작이 없는 것이 무심이다. 드러냄과 갖출 것이 없는 것이 무심이다.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무심이요. 해탈자의 자유로움이 무심이다. 이치를 바로 보고 더함도 덜함도 없이 얽매이거나 끌려가지 않는, 일 없는 마음이 무심(無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앓는 병은 유심(有心)의 소유욕과 집착심으로부터 비롯된다. 집착심을 벗어버리면 몸도 마음도 가뿐해진다. 쥐고 있는 한, 자유는 오지 않는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면 생각의 노예가 된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그 생각에 머물지 않으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불교에서의 무심(無心)은 소유욕과 집착에서 자유로운 참사람을 의미한다.

참사람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되는 것이다.

아무에게나 착한 벗이 되는 것이다.

사납고 인색한 중생은 걸인도 피해가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㉑ 보시를 행하는 자세

若有乞者不知菩薩。體性樂施。菩薩執手歡喜與語。猶如親友。壞彼不知使生知相。彼乞求者得財歡喜。傍人見之亦復歡喜。願此救濟我者長存於世。此乃乞者ß濟。(약유걸자부지보살。체성락시。보살집수환희여어。유여친우。괴피부지사생지상。피걸구자득재환희。방인견지역부환희。원차구제아자장존어세。차내걸자진제。)

菩薩見乞者時身心歡喜。面如滿月。使彼乞者歡喜悅豫如甘露塗心。菩薩和悅色用慈心眼視於前人如飮甘露。譬如有人盜竊他物至市賣之若得速 p心大歡喜。菩薩得施乞者物時。心大歡喜復過於是。(보살견걸자시신심환희。면여만월。사피걸자환희열예여감로도심。보살화안열색용자심안시어전인여음감로。비여유인도절타물지시매지약득속수심대환희。보살득시걸자물시。심대환희부과어시。)

번역

만약 구걸하는 이가 보살의 성품 자체가 즐겁게 보시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면, 보살이 손을 잡고 기뻐하며 더불어 얘기하되, 마치 친한 벗처럼 여기며 그 모르던 것을 깨뜨려 서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 구걸하는 이가 재물을 얻어 기뻐하고, 곁에 있던 사람이 보고 역시 기뻐합니다. "원하건대, 여기 나를 구제하는 이가 세상에 오래 머물게 하소서."하니, 이에 곧 구걸하는 이가 진정으로 구제 됩니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볼 때 몸과 마음이 기쁘고, 밝은 달처럼 대면합니다. 구걸하는 이를 기쁘고 즐겁게 하되, 단 이슬로 마음을 적시는 것 같이 합니다. 보살은 온화하고 기쁜 얼굴색으로 자비롭게 마음 쓰며, 눈으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볼 때 단 이슬을 먹이는 것처럼 합니다. 비유하자면, 사람이 도둑질을 할 때 남의 물건을 훔쳐 시장에 팔되, 만약 빨리 팔아치우면 마음이 크게 기쁜데, 보살은 구걸하는 이의 물건을 베풀게 되었을 때, 마음에 일어나는 대환희심(大歡喜心)은 이것보다 더욱 큽니다.

해설

보살의 관점은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 있다. 보시를 베푸는 데 있어서 구걸하는 이의 입장에서 한다는 말이다. 주면서도 받는 이가 혹시 속상하지 않을까. 그가 혹시 받으면서도 불쾌하지는 않을까. 구걸하는 이가 구걸하는 행위를 자책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러니 보살은 주었다고 우쭐하거나, 스스로 자만한 경우가 없다.

구걸하는 이가 와서 구걸을 할 때, 보살의 본래 성품 자체가 억지로 보시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려주어 받는 이의 마음도 즐겁게 만들어준다.

보살은 구걸하는 이를 볼 때 몸도 기쁘고 마음도 기쁘다. 마치 춤이라도 출 듯 흥겹다.

구걸하는 이를 대하는 보살의 얼굴은 만월(滿月)처럼 밝다. 눈빛은 마치 단 이슬을 먹이는 것처럼 온화하고, 자비심으로 한없이 포근하다.

이 〈대장부론〉을 쓴 제바라보살은 도둑이 재물을 훔쳐 빨리 내다 팔아 이익을 챙긴들 보살의 즐거움에 비할까. 이 도둑의 즐거움이 보살의 보시를 베푸는 마음보다 클까 하고, 탐욕을 경계하고 있다.

**만약, 어느 중이 보시를 말하거든
아주 어렵게 보시를 말하거든
뛸 듯이 기뻐하며 즐거워하소서.
당신이 바로 자비로운 보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납고 인색한 중생은
구걸하는 이조차 피해 달아납니다.**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